

우리학교 의대증원 “아직은 회의적”

김륜희 기자 poetry_5989@khu.ac.kr

【서울】정부에서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 의사를 밝히면서 의대 정원이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지만, 우리 학교는 아직 회의적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의사를 밝힌 이후 이번 달 40개 대학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가 이뤄졌다. 수요조사 이후 우리학교 의대 허영범(해부학) 학장은 “2005년 우리학교 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완전 전환되며 정원이 10명 감소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10명을 늘려 120명으로 정원 확대를 바란다”는 취지로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아직 우리 학교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기획조정처 전략기획팀 김동준 팀장은 “의대 증원을 위해서는 많은 실험, 실험, 인턴 과정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3천 명으로 최적화돼 있다”며 “의대를 증원하기 위해서는 대학마다 실험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새 교수를 임용하는 등의 투자가 선행되며 함께 맞물려 가기 때문에 상당한 준비 기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세부적으로 교원 부족 여부, 공간 부족과 더불어 졸업 정원 모두를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 병원 인턴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서는 의대 규

모 증원뿐만 아니라 대학 병원 규모도 함께 커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국립 대학에 비해 우리학교를 비롯한 사립대학은 재정지원을 그만큼 받지 못한다며 의대 증원에 신중을 기했다. 김 팀장은 이어 “의대에서 N명을 증원하려면 다른 과에서 그만큼을 줄여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정원이 축소되는 학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희의료원 공문규(방사선종양학) 교수도 의대 증원에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공 교수는 “현재도 인체 모형으로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현미경을 사용하는 수업에서도 정작 현미경이 부족하다”며 의대 정원 확대 시 공간과 기자재가 더 부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간과 기자재 부족 외에도 “정원 확대로 본과 학생의 병원 실습과 해부학 실습에서도 한 조당 배정되는 학생 수가 늘게 되면 실습의 기회가 줄어든다”며 교육의 질 저하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어떤 학과는 짧은 기간 내 정원을 늘릴 수는 없는 것처럼 의대 증원도 마찬가지”라며 “의대 교수로서 많은 학생을 교육하는 것보다 잘 교육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이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배정이 확정될 계획이다.

‘행정조교’ 폐지 및 장학제도 변경

박상희 기자 smtg7475@khu.ac.kr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조교제도가 개편된다. 일반 사무를 보조하던 행정조교 폐지, 교육조교와 연구조교로의 개편, 장학제도 변경이 주 내용이다.

현재 우리학교 규정에 따르면 조교는 ▲교육조교 ▲연구조교 ▲행정조교로 구분돼 있다. 교육조교는 교육 관련 업무 보조, 행정조교는 행정 또는 일반 사무 보조 업무 담당, 연구조교는 연구 및 기타 학술활동 업무 보조를 담당한다. 하지만 조교제도 개편으로 행정조교가 사라지고 교육조교(TA)와 연구조교(RA) 두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된다.

현재 우리학교에는 약 1,000명의 조교가 있으며, 이 중 약 200명 정도가 행정조교다. 현재 일반 사무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조교 인원을 교육조교 업무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기획조정처 김동준 팀장은 “행정조교는 교육과 전혀 관련 없는 아주 단순한 보조 업무를 하고 있다”며 “행정조교 자리를 없애고 해당 조교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을 교육조교와 연구조교에게 지급해 본인들의 경험을 쌓거나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현재 행정조교는 교육, 연구조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단과대학에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개정 전			개정 후		
조교 구분	교육조교 연구조교 행정조교		교육조교(TA) 연구조교(RA)		
장학 제도	I 유형	주 14시간 근무 시 등록금의 80% 지급	교육 조교 (TA)	I 유형	주 14시간 근무 시 500만 원 지급
				II 유형	주 7시간 근무 시 250만 원 지급
	II 유형	주 7시간 근무 시 등록금의 40% 지급	연구 조교 (RA)	전액 장학 지급	

장학제도 또한 변경된다. 현재 조교는 I 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뉜다. I 유형은 주 14시간 근무 시 등록금의 80%가, II 유형은 주 7시간 근무 시 등록금의 40%가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단과대별 등록금이 상이하기에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받는 장학금 액수가 다르다. 하지만 제도가 변경되면 교육조교의 I 유형은 주 14시간 근무 시 500만 원 지급, II 유형은 주 7시간 근무 시 250만 원 지급으로 정액 운영된다. 연구조교는 등록금 전액 장학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조교는 데이터 분석, 실험치 측정과 같은 연구를 시행하기 때문에 시간에 제한을 두어 업무 시간을 설정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다.

이어 김 팀장은 “행정실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 단과대별 등록금 차이 때문에 조교별로 받는 돈이 달라지니,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액수의 장학

금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I, II 유형은 장학금 평균이 450~60만 원”이라며 “평균 보다는 조금 더 상향 지급을 위해 500만 원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조응현(일반대학원 영어영문학)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슷한 난이도의 업무를 하는데도 문과대나 정경대처럼 원래 등록금이 낮은 곳은 장학금 수혜 금액이 적어지는 차별 아닌 차별이 있었다”며 “그 부분은 많이 해결될 것 같다”는 긍정적 의견을 전했다.

한편 조교 인권 보장 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학기 시작 전 모든 조교의 복무 가이드라인 동영상 시청이 의무화되고 복무협약서에 학장, 교수의 부당한 업무 지시 금지 등과 같은 사항이 추가될 예정이다. 김 팀장은 “조교가 업무 중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같은 행위를 겪었을 때 인권센터에 신고하는 것도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내가 쓴 글, 내가 찍은 사진을 누군가 동의 없이 사용한다면?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듯이 저작권은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권리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저작권을 지켜주세요!

불법복사
불법스캔
불법공유

이제 그만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출판 저작권 침해 사례 3가지

1 사례

교재가 너무 비싸니까 복사집에 가봐야지.
제본책이나 PDF 파일을 살 수 있을 거야.

2 사례

내돈내산 교재니까 스캔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 팔아야지!

3 사례

친구들이 전자책 공유해 달라는데
툭에 올려도 되겠지?

출판물을 무단 복제·공유·유통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창작자의 노력을 존중하며, 저작권을 보호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대학출판협회